

<연구논문>

유관순열사의 정신계승에 관한 연구

송 병 호*

국문요약

유관순열사의 정신은 일본의 제국주의, 대륙침략 및 식민지전략에 따른 우리민족 존립의 위기상황에서 불의에 항거한 항일, 독립, 평등, 자주 및 애국정신으로 한국인의 가슴속에 불멸로 남아있다.

이 연구는 역사적, 교육적 및 종교적 배경에서 유관순 정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유관순열사가 태어난 전후와 자라면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로부터 유관순정신이 생성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다.

첫째 가설로 유관순열사에게 영향을 끼쳤을 역사적 사건으로 청일전쟁과 성환전투, 러일전쟁과 토지수탈, 군대해산과 의병토벌을 구실로 한 양민학살, 직산금광 침탈, 일진회의 병천주민 수탈, 국가와 관청의 무능력과 의지할 곳 없는 주민들 등의 사건들을 조사하였다.

둘째, 유관순열사가 출생이후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익히며 체득한 교육과 신앙이 정신과 불가결하다는 가정이다. 유관순 가(家)나 지역민들이 일제의 침탈에 따른 아픔과 절망감속에서 의지가 되었던 기독교, 기독교가정에서 읽고 외웠던 성경구절, 이화학당 시절의 성경공부와 성경체험, 이문회의 강연과 활발한 사상토론, 일본의 교육자율권박탈 등을 유관순열사의 정신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형성된 정신이기에 일본의 불의와 폭거에 평화적으로 방광이 터져가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항거하는 불멸의 정신으로 거듭 탄생했다고 본다.

한편 유관순열사의 정신계승이 열사의 희생에 대한 보답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계승사업의 개선방안으로 정부, 도와 시차원의 계승사업으로 유관순상과 유관순햇불상 수상부문 개선,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의 노후시설개선과 기념품개선, 유관순학교의 고등학생동아리 활성화,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의

논문투고일: 2021.11.11. 논문심사일: 2021.12.08. 게재확정일: 2021.12.20.

*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학회창설과 연구사업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유관순, 항일정신, 자주독립정신, 평화평등정신, 애족정신, 유관순정신계승

— 목 차 —

I. 서론	IV. 유관순열사의 정신 계승사업과 방향
II. 역사적 배경과 유관순의 항일과 독립정신	V. 결론
III. 종교 및 교육적 배경과 평등과 자주·애국정신	

I. 서론

사람들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한다. 시대를 달리하고 그것도 폭압에 의해 강제 점령된 상황 하에서 어떤 사실을 철저히 숨기려는 강력한 세력이 있는 경우라면 그 사실을 쉽게 밝혀내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사실에 대한 접근은 물론 왜곡의 가능성도 매우 큰 것이다.

유관순열사께서 1920년 9월 28일 자주독립을 외치며 서대문형무소에서 서거하신지 27년이 지난 1946년 2월 미 군정청 공포 제2호 경축일 공포에 관한 건에 따라, 우리민족을 죽기까지 사랑한 유관순열사에 대한 선양사업이 시작되었다.

유관순열사에 대한 사실들이 한 동안 금기시되어왔고 그로 인해 왜곡된 사실의 개입도 부인할 수 없어 열사를 존경하고 마음으로 담고 싶어 하는 후학들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

이 연구는 유관순열사의 정신을 우선 확인하며, 그러한 정신이 어디에서부터 생겨났는가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정신(精神)이란 “육체나 물질에 대립되는 영혼이나 마음이며 사물에 대한 이해와 판단능력이며 결과”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유관순열사의 정신발로를 확인해야 계승할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다.

역사는 있는 사실의 기록이며 누군가의 왜곡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역사는 변화지

않는 것이다.

유관순의 정신은 직접 경험하였거나 유관순탄생과 가까운 역사적 사건들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가설은 그래서 타당해 보인다. 물론 유관순열사에 관한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기록이 없다고 부인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유관순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적어도 관심을 가지고 배우거나 소문으로 들었을 역사적 사실을 일제 침략 사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즉, ‘청일전쟁과 성환전투’, ‘러일전쟁으로 일제의 조선 침탈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의 토지수탈’, ‘군대해산과 의병토벌을 구실로 한 양민학살’, ‘직산금광 침탈’, ‘일진회의 병천주민 수탈’, ‘국가와 관청의 무능력과 의지할 곳 없는 주민들의 이픔’ 등을 통해 유관순 열사가 어떠한 사상과 정신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유관순 정신은 교육적 배경과 종교적 믿음과 불가결하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 유관순열사는 ‘힘없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의지가 되었던 기독교’, ‘자연스럽게 읽고 외웠던 성경구절’, ‘이화학당 진학이후의 학교채플과 정동교회에서의 거듭남을 경험한 담임목사님의 설교’, ‘이화학당 교내부흥회 성경체합’, ‘이문회의 강연과 활발한 사상토론’, ‘일본인교원과 교과서검정에 따른 교육 자율권박탈’ 등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들이 어떠한 사상과 정신을 가지게 되었는지 중요한 과제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유관순열사의 계승정신을 확인했다면 어떻게 정신계승을 할 것인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국가와 정부, 유관기관 및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선양사업들을 검토하고 향후 보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역사적 배경과 유관순의 항일과 독립정신

1. 청일전쟁의 전개와 민족의 이픔

서구열강 특히 일본의 조선침탈을 중심으로 유관순열사에게 영향을 끼쳤던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그녀의 자유, 항일, 독립, 자주, 애국의 사상을 싹틔웠고

민족과 국권회복을 위한 몸과 마음을 불태우는 굳은 의지와 신념의 토대가 되었다.)

먼저 청일전쟁(1894년 7월 25일~1895년 4월 17일까지)은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청나라와 일본의 패권야욕을 노골화하면서 발생되었다.

청일전쟁은 영국, 프랑스 등 서구열강에 패한 자존심을 회복하고 동아시아 패권국의 위치를 되찾기 위한 청나라와 메이지유신으로 급격하게 발전한 일본의 섬나라의 지리적 약점을 극복하고 대륙과 연결된 식민지제국 건설이라는 야욕이 충돌하며 발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청나라의 경우, 서구 열강과의 본격적인 대립이 시작되면서 패전을 거듭하였고, 아편전쟁을 통해 내외적으로 치명상을 입고, 과거 조공국 중 하나인 베트남을 프랑스에 넘겨주는 체면이 구겨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청나라는 재기를 위해 양무운동을 통해 힘을 모아 동아시아 패권국의 위치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외국에 대한 영향력을 더 이상 잃을 수 없었고, 따라서 조선을 일본에게는 절대 넘겨줄 수 없는 입장이었다.

일본 또한 조선 침략에 회의적인 인물들의 반대를 대부분 무마시켜 식민지 야욕을 본격화하였는데, 그 침탈의 시작점이 조선과 대만이었다. 조선을 얻게 되면 그 육로를 통해 러시아, 청나라를 넘어 유럽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고, 타이완 섬을 얻게 되면 유럽까지 이어질 해로를 개통할 기회가 생기며 육·해로를 통해 쇠락해진 청나라를 점령할 생각이었다.

1) 성환전투

성환 전투(成歡戰鬪)는 청일 전쟁 초기 풍도 해전과 함께 일본군이 벌인 첫 전투다. 1894년 7월 28일에 충남 천안 외곽의 성환읍에 주둔한 청군을 일본군이 공격하면서 시작되었는데, 동학농민군 진압을 목적으로 조선에 들어와 서울에 주둔한 일본군 육군 소령 오시마 요시마사는 4,000명의 부대를 남쪽으로 돌려 청나라의 북양군을 추방시킬 목적으로 전투를 일으켰다.

아산만으로 입국한 청군 3,500명은 당시 성환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1894년 7월 25일에 풍도 해전²⁾에서 지원군을 잃어버렸고 청군은 일본군에 대패한 전쟁이다.

1) 박춘순, 「유관순 정신 계승사업의 성과와 방향, 2021 충청남도독립운동가 추모」, 『선양 학술포럼』, 2021, 9쪽

2) 풍도 해전(중국어: 豐島海戰, 일본어: 豊島沖海戰)은 1894년 조선 충청도 아산만 입구의 풍도 앞바다에서 일본군 함대가 청군 함대를 공격하면서 일으킨 사건으로 이 전투를 시발점으로 청일

이 전투에서 전체 병력 가운데 7분의 1을 잃은 청군은 평양으로 후퇴해 일본군과의 일전을 준비했고 8월 1일에 공식적으로 청일전쟁이 시작되었다. 이후 벌어진 평양 전투에서도 청군이 궤멸되어 한반도 내의 청군 세력을 소멸되게 된다.

유관순(家)의 사람들이 사는 지령리는 청일의 전쟁터가 된 성환읍과 멀지않은 지역에 있어 전쟁을 목격하거나 그 소식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었고, 외세의 영향력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평양전투와 주민의 피해

평양 전투(平壤戰鬪)는 청일전쟁 당시 1894년 9월 15일 일본군과 청군이 치른 두 번째 주요 전투다.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군에 대항하여 당시 흥선대원군은 평양감사에게 ‘청군과 연합하라는 밀지를 보내고 조선군은 청군의 편에서 싸운다. 두 달도 되기 전인 7월 29일 성환 전투에서 청군을 궤멸시키고 진군한 일본군의 높은 사기 앞에 자신의 기반인 군사력을 잃을까봐 군대에 불리하다 싶으면 바로 퇴각하라는 명령까지 받은 이홍장의 군대는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1984년 9월 15일 아침 일본군은 세 방향에서 평양성을 공격했고 북부와 남동쪽 지역을 돌파해 모란봉을 점령했으며 후면에서 예기치 않은 공격으로 청군은 대패해 을밀대에서 항복했으며 9월 16일 일본군은 평양성에 입성했다. 전투 결과 일본군의 사상자는 180여 명에 불과했지만 청군은 2천여 명이 전사하고 4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2천 명은 압록강 변으로 퇴각하였다.

이 전투 후 한국에서 주도권을 잡게 된 일본은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였고, 조선의 물자와 노동력이 일본군에 제공되었고 이로부터 농민 봉기가 발생하였다.

2. 러일전쟁이후 토지수용 등 침탈과 민족의 저항

1) 러일전쟁의 시작과 일제의 토지수탈

1904년 러일전쟁의 개시와 함께 일본은 강요로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게 한다. 「한일의정서」 상의 ‘군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용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전쟁이 발발했다(<https://ko.wikipedia.org/wiki/>).

한국 내 곳곳을 수용하여 군사기지를 설치하게 된다. 러일전쟁이후 일본군에 의해 군용지로 수용된 토지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송지연, 1997: 66). 첫째, 러일전쟁 개시와 함께 일본 육해군에 의해 포대, 전신소 등으로 점유된 연안 및 도서지역, 둘째, 경의선, 마산선 등의 군용철도용지, 셋째, 한국주차군의 주도로 행해진 주요도시의 병영부지, 넷째, 통감부 伊藤博文과 일본 해군의 협력하에 이루어진 진해만, 영흥만의 균형화를 위한 군용지 등이다.

일본군의 토지수용은 러일전쟁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한국정부의 승인하에 이루어졌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하였다. 하지만 러일전쟁이 개시되면서 한국정부와 협의 없이 토지를 군용의 명목으로 점유하였고, 일본의 강요로 「한일의정서」가 체결되면서 군용지를 자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되었다³⁾.

문제는 일제가 수용하는 토지가 러일전쟁 수행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군사적 목적 수행이라기에는 너무 넓은 지역을 그리고 기한도 정하지 않고 수용하여 사실상 식민지화의 단계를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즉 군용지로 수용한 고통요충지 용산의 경우 1908년 5월 용산 주차군 사령부 관하의 군용지 중 14,000평을 공장부지, 제일은행 사택, 각종 일본인 학교 등으로 제공하거나, 지하지원이 풍부한 광산을 사격장 용지로 수용하여 지하자원 산지를 수탈하는 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2) 현지민의 토지보상저항운동

일본이 러일전쟁을 활용하여 연안항해권, 내하 및 연해항해권, 철도부설권 및 관리권, 통신관리권 등의 중요한 이권을 강점하고 이어 한국의 영토주권을 위협하는 황무지 개척권을 요구하자 지식층 내부에서 배일여론이 비등하였고 보안회를 중심으로 민족적 저항운동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후 일본군의 군용지 수용문제해결을 요구하는 현지민의 저항을 군율로 다스리며 탄압하는 일본군의 부당행위를

3) 「한일의정서」 제4조에 의하면 제3국의 침해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존에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정부는 곧 임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며 대한제국정부는 이러한 대일본제국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제국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 수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송지연, 1997: 68-69).

해결하지 못하는 한국정부의 무능을 개탄할 수밖에 없었다. 지식층이나 언론계도 군용지 수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본의 침략적 성격을 인식하고 배일여론을 확산시켰으나 직접적인 항일활동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독교 계열의 상동청년회는 1905년 8, 9월 군용지 수용문제에 대해 지가보상운동과 반일투쟁을 벌이던 서울 시민들을 대거 받아들여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송지연(1997: 86)에 의하면 상동청년회의 활동에 당시 궁내부 대신 이재극을 비롯한 다수의 대관이 청년회에 가입하였고 군용지 수용문제로 수십 명의 회원에 불과하던 것이 일주일 만에 1천4백명의 회원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한국 내무부 경찰국 편, 고문경찰소지 제2절 만국야소청년회: 97). 이후 상동청년회는 기독교 단체적 성격에 머물지 않고 배일적 성향을 강하게 띄었고 을사5조약 반대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항일운동을 벌였다.⁴⁾

특히 군용지 수용으로 가옥전답을 몰수당하여 생존권을 위협당하는 현지민들의 투쟁은 필사적일 수밖에 없었다. 경의선공사로 인해 정거장부지의 수십만평과 육군병영부지로 다시 수백만평을 빼앗긴 서울과 평양지역 현지민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었다. 이러한 현지민의 저항에 일본은 헌병을 동원하여 총칼로 해산하였고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으며 이러한 저항과 현지민의 피해는 평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3) 의병운동

일본군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배야욕을 간파한 유생들을 중심으로 1904년 4월이 항일의병운동을 촉구하는 배일통문을 전국 각지로 배포하고 경기, 강원, 충청, 경북 등지에서 토왜를 명분으로 의병이 봉기함. 당시 의병의 봉기 이유를 한일의정서를 체결한 목적이 러시아를 추출한다는 구실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를 집어 삼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간파하였고 일본의 침략에 힘을 합하여 국토를 지켜야 할 것을 주장하는 자주정신의 발로임을 설파하였다. 또한 러일전쟁기 일본군에 의하여 각종 물자와 토지, 노동력을 징발당한 민중들은 의병으로 봉기하여 일본의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실력행사를 행함.

4) 송지연, 앞의 논문, 86쪽

3. 군대해산과 주민의 생존권 박탈

1) 정미7조약과 군대해산

대한 제국이 출범한 이후인 1905년 일제가 을사조약을 맺고 외교권을 박탈하자, 당시 황제였던 고종은 이 조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 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위종 등 특사를 파견했다.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일찍부터 주권을 침탈하는 과정을 밟고 있었던 일제는 크게 놀라 헤이그 특사 사건을 추진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추대한 뒤, 친일파 총리대신인 이완용을 앞세워 1907년 한일 신협약, 소위 ‘정미7조약’을 맺게 했다.

이완용과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 사이에 맺어진 이 협약으로 인해 대한 제국은 중요한 정책을 시행하거나 관리를 임명할 때 일제의 승인을 거쳐야 했다. 행정이나 사법 분야의 관리를 임명할 때 조선 통감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며, 각 부서에 임명된 일본인 차관들이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또한 경찰권을 빼앗기고 군대도 강제로 해산되었다. 언론을 탄압하는 신문지법, 정치의 자유를 빼앗는 보안법까지 시행되면서 대한 제국은 꺾이기만 남게 되었다. 즉, 대한 제국은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로 떨어지자 국민들의 분노도 커졌고, 해산당한 군인들 중 일부는 의병에 합류해 의병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2) 의병토벌의 구실과 양민학살

군대해산이후 일본군과 전면전을 준비하던 의병은 각자 의병진을 편성하여 항일유격전을 벌였는데, 1907년 가을 유관순열사의 거주하는 목천군과 진천군 산악지대는 의병의 주요 활동 무대였다(이덕주, 최태욱, 2019: 33). 유열사의 거주지인 지령리에서 20여리 떨어진 목천읍에서 일본군과 의병 간에 전투가 있었고, 의병에 협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민을 총살하는가 하면, 의병의 보급로를 차단한다는 구실로 의병이 지나간 마을을 불 지르기도 하였다. 또한 의병 20여명에게 음식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마을을 불 지르고 곡식을 불태우며, 마찬가지로 의병에 협조했다는 구실로 교회예배당(병천읍 아내교회)을 불 지르고 교인들을 살해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그런데 유관순열사는 당시 이러한 사건들을 직접 목격할 수 있거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인접한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점이다.

3) 직산금광 침탈

1990년 3월경 일본인 하야시 곤스케는 금광채굴권을 외부에 요청하였고 한국정부가 거절하자 선 채굴 후 특허권취득 전략으로 무장한 일본 순경으로 망대를 구축하고 수천 명의 광부를 채용하여 금광을 불법 장악하였다.

문제는 이들이 금을 캔다는 명목으로 위례성 유적은 물론 주민들의 묘지, 집, 논, 밭을 닦치는 대로 파헤치는 것이다(이덕주, 최태욱, 2019: 40). 시굴조사명목으로 조약체결 당시 채굴광구면적 밖까지 그리고 체결기간을 초과하여 우리 국토를 파헤치는 불법을 저지름. 하지만 이러한 불법을 알고도 무장한 일본군의 지원을 받는 관공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수탈은 날로 심화되어 갔던 것이다.

4) 일진회의 병천지역민 수탈

일진회는 친일파 송병준, 이용구 등이 조직한 것으로 유신회와 진보회가 통합하여 탄생하였다. 일진회의 실질적 창립자 송병준은 전 독립협회 회원들과 접촉하여 유신회를 만들고 이후 1904년 12월 전국적인 기반을 가진 이용구의 진보회와 통합하여 일진회를 발족시켰다.

일진회가 출범하면서 표방한 것은 독립협회 이래 개화지식인들이 추구한 것과 같은 ‘문명화된 국가였다.’⁵⁾ 이는 대외적으로는 국권의 문제, 대내적으로는 민권의 문제였는데 황제권의 경우 대외적인 자주독립을 위해서는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대내적인 민권 보장을 위해서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창립취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다만 일진회가 추구한 근대적 문명지상주의는 러일전쟁을 기점으로 그 성격이 점차 변질되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보호국화 추진과 다각적인 매수공작, 한국주차군사령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후원 등을 배경으로

5) 김종준, 「국권상실에 대한 일진회의 인식: 문명화론과 합방론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011, 96쪽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수단들이 맞물리면서 이후 일진회는 1910년 한국이 일제에 강제 병합될 때까지 일제의 조선침략정책에 적극 협력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일진회: <https://terms.naver.com>).

이러한 일진회의 평가를 뒷받침하는 목천군 병천면의 일진회의 악행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운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각 도에서 시행된 ‘지방비 부과금 부과규칙’에 의해 시장세를 징수하여 한국상인을 크게 위축시키고 합법을 가장한 시장수탈을 자행하였다.⁶⁾

둘째, 일진회가 역둔토⁷⁾를 장악하고 마음대로 소작인과 소작료를 결정하므로 소작인들은 경작지를 잃어야 했다.

「대한매일신보」(1906.6.26.)의 기사에 의하면 “목천군 일진회장 조화경은 평소 술에 빠져서는 자로 돈과 재물 등 토색거리를 찾던 중 부회장 김연일을 속이고 목천군 북면사는 이주사가 음행했다고 거짓사실을 꾸며 일진회원을 데리고 가서 잡아다가 구타하고 강제로 돈과 미곡을 빼앗았다. 이에 원통함을 이기지 못한 이주사가 자기 목을 자해하는 소동이 있었다. 이처럼 일진회가 마음대로 양민을 잡아다가 재물을 늑탈하니 이 일대가 시끄럽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을 정도였다.

4. 국가 및 관청의 무능력과 의지할 곳 없는 주민들

당시 피 기득권 한국인 전체에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유관순가의 사람들도 병천시장 상인들의 피해, 일진회의 수탈, 마을이 불타고 다니던 예배당이 전소되는 현장을 목격하였거나 전해 들었다. 유관순 부친 유중권도 재산을 일본인 고리업자에게 빼앗겼다(이덕주, 최태욱, 2019: 45).⁸⁾

이러한 상황도 역을하지만 당시 백성들을 더욱 참담케 하는 사실은 일제와 그 앞잡이들의 만행을 방어하고 지켜주어야 할 국가와 관청이 너무나 무능력

6) 이덕주·최태욱, 『유관순가의 사람들』, 서울: 신앙과 지성사, 2019, 42쪽

7) 역둔토는 조선시대 역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된 전답인 역토와 역에 주둔한 군대가 자급자족하는 둔전을 합하여 역둔토라 한다(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

8) 이덕주·최태욱, 위의 책, 45쪽

하였다는 점이다. 의병소통을 구실로 병천, 진천 등에서 200여 가구가 불에 타고 수백 명이 살상되었지만 항의조차하지 못하는 관청이었다.

당시의 비통한 상황을 「대한매일신보」, 1910.7.1. 기사에는 “일본인이 한국에 유입되면서 한국민은 눈과 발을 팔고 산으로 산으로 밀려났다. 이렇게 밀려나가 일본인이 산까지 차지하면 한국인은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일본신문의 기사를 재인용하고 있다.

III. 종교 및 교육적 배경과 평등과 자주·애국정신

1. 힘없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선택

생활근거지를 빼앗기고 재산과 목숨까지 침해되어도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의 무기력으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의지할 곳은 어디일까?

美 감리회와 北 장로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목천, 진천, 천안, 안성, 죽산, 청주일대를 선교하였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 당시 선교사 스웨러는 1907년 美 감리회 한국선교연회에서 “8년전 한 남자가 세례 받음으로써 시작된 예배공동체가 이제는 298개로 증가하였고 교인들인 800여 마을, 16,600여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⁹⁾

당시 전도의 특성 중 하나로 파송한 목회자에 의한 선교가 아니라 현지 주민들의 자발적인 선교에 의해 교인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거나 받아들이는 것도 타율적이지 않고 자발적이었던 점이다.

이 연구의 주인공 유관순열사 신앙교육과 정신도 6촌 할아버지 유빈기가 1905년 공주에서 케이블장로사의 전도로 기독교인이 되고 고향에 지령리 교회를 세웠고 불과 1-2년 만에 이 교회의 교인이 100여 명으로 늘었다는 사실과 당시의 무기력한

9) 이덕주·최태욱, 앞의 책, 50쪽

정국과 힘있는 종교에 대한 기대 정서 등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2. 힘 있는 종교를 빙자한 악행들

당시의 주민들이 교회에 의지했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들로 ‘서양교인 사칭 폭력갈취사건’과 ‘플리머스 형제단 사건’이 있다.

당시 주민들에게는 의병과 토벌군 간의 전투 속에서도 십자가와 성조기를 꽂아 놓으면 보호받거나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들이 퍼져있었고 이러한 인식을 악용하는 사건들이 줄을 이었던 것이다. 1907년 2.26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의하면 “이천, 진천, 목천 등의 최초 전도인 박해숙은 예수교를 사칭하고 약한 백성의 돈과 재물을 강취하는 악행으로 예수교목사직을 면직당한 이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스웨터(서원보, 徐元補)목사 예배에 참석할 것이라고 4-50명의 무리를 모아 약한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구는 경우가 비밀비재하다”고 하였다(이덕주, 최태욱, 2019: 64).

또한 플리머스 형제단(Plymouth Brethren)은 1820년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기독교 근본주의 성격의 복음주의 운동으로 태어난 개신교 교파인데, 1896년 일본인 전도자 노리마츠가 개인자격으로 내한하여 한국인의 협력을 얻어 서울, 경기지방을 중심으로 전도활동을 하는 조직이었다. 당시 목천, 진천, 안성 등지의 기독교인 중에는 일본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직산금광을 점유하면서 일제세력이 막강해지는 것을 보고 플리머스형제단으로 교적을 옮기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당시에 의지할 곳 없는 백성들이 힘 있는 종교에 의지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는 다양한 형태들이 나타났던 것이다.

3. 유관순열사의 기독교적 환경

유관순은 1902년 12월 16일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에서 유중권과 이소제의 딸로 태어났다. 유열사는 어려서부터 기독교적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므로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그녀의 삶을 논할 수 없다고 한다.¹⁰⁾ 즉, 할아버지 유윤기(지령리교회

10) 박충순, 앞의 글, 9쪽

교인)는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6촌 할아버지 유빈기는 열사의 고향인 지령리교회를 설립하신 분이며 작은아버지 유증무는 지령리교회 최초교인이자 전도사이자 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며 학생들을 교육하였다. 특히 1919년 4월 공주읍 독립만세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일본군의 총검에 자상을 당한 투옥된 이후 독립운동으로 일생을 바친 오빠 윤우석의 조선일보(1961.8.26.)와의 고인회상 인터뷰에 의하면 유열사는 “예배당 마당에서 자주 놀 정도로 교회를 가까이 했고, 한글을 스스로 깨친 후 성경을 읽고 성경구절을 외웠다”고 한다(이덕주, 최태욱, 2019: 141). 이러한 기독교적 신앙이 자리 잡은 배경에는 일제의 침략과 수탈에 따른 주민들의 아픔과 독립과 자주 및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이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관순을 비롯한 유관순 가(家)의 특이한 점은 양반, 상인, 노비 등 봉건제가 유지되던 시절에 봉건제를 타파하고 기독교 평등주의를 실현하는 상황이 발생한 점이다. 이덕주·최태욱(2019: 93)에 의하면, 지령리 최초 신자인 유빈기가 자기 사촌이자 유관순의 할아버지인 유윤기와 유관순 작은 아버지인 유증무를 전도하고, 손자 유우석, 손녀 유관순 등 가족친지 대부분을 교회로 전도하였는데, 특이한 점은 산지기, 안중과 바깥 중 등 노비도 교회를 다니게 했다는 것이다. 이는 신분차별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민이 평등하다는 사상을 실현한 사례라 할 것이다.

보다 직접적으로 남자중심의 유교사상이 일반화된 당시에 여성인 유관순이 영명학교와 이화학당 등 신식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위와 같은 기독교적 환경과 여 선교사 엘리스 샤프(Alice H. Sharp)의 후원이 크게 작용하였다. 엘리스 샤프의 한국 선교사역은 특별하다¹¹⁾.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뜻을 받들기 위해 다시 공주로 돌아와 더욱 열정적인 선교활동과 교육사업에 매진다. 여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한확신과 의욕을 가졌던 샤프는 지령리교회의 유관순을

11) 이정은(2010: 62-63)에 의하면 그녀는 ‘사부안’으로 불렸는데, 본명은 엘리스 제이 햄몬드이며 1900년에 한국에 선교사로 역시 한국의 선교 온 로버트 아더 샤프(Robert Arthur Sharp)와 결혼하게 되어 ‘사부안’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사부인의 특별한 사연은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눈산, 강경 등지로 전도여행을 가게 되고 거기서 갑자기 내린 진눈깨비를 피하기 위해 들어간 작은 초가집이 발진티푸스로 장사지낸 집으로 남편이 전염병에 걸려 사망하게 되자 충격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주목하였고, 일찍이 혼자자 된 그녀는 가정이 어려운 유관순을 친딸처럼 생각하면서 공주로 데려가 명명학교를 다니게 하였다. 이후 그녀는 이화학당 보통과 2학년으로 편입도 앞선하고 후원하였다.

이화학당 진학 이후 학교 채플과 학당 바로 옆의 정동교회를 주일마다 빠짐없이 다니면서 신앙심을 키웠음은 물론, 외국인 선생님과 선교사들을 통해 서양 여러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¹²⁾ 한편 유관순열사가 이화학당 시절 다닌 정동교회의 담임목사는 1915년 4월부터 1918년 5월까지(만 3년 동안) 손정도목사, 1918년 5월부터 1919년 3월까지 이필주목사 등인데 이들의 가르침이 유관순열사의 의식속에 크게 자리매김했을 것이다. 손정도 목사는 3·1운동직전 상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상해, 길림, 봉천, 북경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1931년 망명지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또한 이필주목사역시 3·1운동 때 감리교 대표로 독립선언서에 동참한 애국지사로 이정은(2010: 84)에 의하면 그는 기독교로 개종할 때 거듭남을 체험했기에 “나는 내가 민족을 위해서 가장 으뜸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어왔다. 내가 이 민족을 구해낼 수만 있다면 열 번 백번일지라도 가까이 죽을 각오이다”라고 고백했다고 한다.

이러한 정동교회 목회의 가르침이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유관순의 어릴 적 경쟁심에서 친구들 간의 말싸움이 깊어지면 생사를 초월한 말을 하는 단계로 성숙해갔다.

즉, 유관순의 동네 친구 남동순의 증언에 의하면, 유관순과 함께 물에 비친 얼굴을 보며 놀다가 얼굴이 친구가 더 예쁘다고 하면, 통명스럽게 암 말도 말라고 기분상해 했다고 회상하였다.¹³⁾ 하지만 정동교회를 다니면서는 이화학당 기숙사 친구들과 간에 말싸움이 나면, “그래 그만둬, 그까짓 얼마나 살자구 속을 썩이면서 놀겠니?”, “웬 욕심이 그리두 많니? 너흰 펍두 오래 살려나 보다”, “애 그럼 넌 열여섯살만 살래”, “그야 누가 아니, 열여섯살만 살지 열일곱만 살지, 내년에 죽을지”(이정은, 2010: 84).

12) 박충순, 앞의 글, 10쪽

13) 이정은, 『3·1운동의 열 유관순』, 서울: 역사공간, 2010, 42-43쪽

4. 유관순열사의 기독교적 사명

우리는 위에서 유관순열사의 기독교적 환경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교육과 스스로의 성찰로 한 사람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갈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열사의 정신을 정립하게 된 사명감, 즉 죽음을 부르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 무엇이 무엇으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해답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홍석창(1996: 75-76)에 의하면, 유관순이 이화학당을 다닐 당시에 기독교적 신앙 활동 이외에도 이문회(以文會)를 통해 유명인사를 초빙하여 시국강연을 듣고 활발한 사상토론을 벌이며 중요한 활동방향을 자주적으로 정하곤 하였다고 하며, 일제의 비인도적 탄압을 온 세계에 알리고 독립을 호소하는 계획을 세우고 모금운동을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¹⁴⁾

김기창(2005: 25)에 의하면 이화학당 주체로 김중우목사를 초청하여 교내부흥회를 개최하였는데, 설교 후 목사님의 인도에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나타날 것이니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자, 유관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유관순에게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너 모세야 이제 가라고 하는 그 확신과 이상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김기창은 이러한 기도는 유관순이 앞으로 저야할 민족의 고난과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진단하였다.¹⁵⁾

한편 박충순(2021: 11-12)은 유관순열사가 성격 속의 어떠한 애국자들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유관순정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는 사사기의 드보라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먼저 언급한다. 드보라는 여자로서 사사가 되었고 군사지도자로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인물인데, 소극적이며 유약한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에게 용기를 주고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유관순에게 크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진단한다. 다음으로 하만에게 멸족을 당할 위기의 민족을 구사일생으로 구하는 고아로 자란 에스더얘기, 골리앗과의

14) 박충순, 앞의 글, 11쪽

15) 박충순, 같은 글

싸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간 다윗의 용기 등이 유관순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고 군국주의 일본에게 당하는 억압과 수탈을 언젠가는 무찌르겠다는 신념을 키웠을 것으로 예측한다.

5. 교육과 애국애족 사상

일본은 ‘모범교육’을 실시한다는 구실로 일본인교원을 관공립학교는 물론 기독교계 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에 배치하였다. 일본인교원은 학생들의 사상을 감시하고 친일사상을 주입하려는 목적이었다. 1915년 개정사립학교규칙을 통해 한국인을 교육하고자 하는 모든 학교는 총독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교과서 검정을 통과해야 교재로 채택되도록 하면서 교육의 자율권까지 박탈하였다.¹⁶⁾

기독교계 학교에서 성경, 역사지리 등의 과목이 폐지되고 종교의식까지 거행할 수 없게 되자, 장로교총회에서는 총독부와 교섭을 시도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유관순의 이화학당도 방과 후에만 종교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화학당은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오후 3시만 되면 일제히 수업을 중단하고 조국독립을 기원하는 기도회를 가졌으며, 이문회를 중심으로 사상토론과 국가의 발전에 관한 활발한 논의 등으로 애국정신을 키웠다. 특히 신마실라, 박인덕, 신준려, 김활란, 황애덕 등 10여명의 졸업생과 김마리아, 나혜석 등이 교사로 채용되면서 이러한 전통은 더욱 확고해졌다고 한다.¹⁷⁾

이러한 학교분위기에서 성장한 이화학당 학생들은 1919년 1월 고종황제의 서거소식에 자진해서 상복을 입고 휴교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이러한 울분은 3·1운동을 촉발시키며, 수많은 학생들이 서울과 지방의 만세시위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정은(2010: 111)은 유관순은 서명학, 김복순, 김희자, 국현숙 등과 5명의 결사대를 구성하고 3·1운동 외에도 3·5학생시위운동에도 참여, 체포 후 석방되었다. 일제는 3월 10일 전국에 휴교령을 내려서 이화학당도 문을 닫았기 때문에 기숙사를 나와 고향집으로 내려가야 하였다.

당시 유관순과 친구들 아니 독립만세운동으로 길거리에 나섰던 백성들 모두가

16) 박충순, 앞의 글, 15쪽

17) 박충순, 위의 글, 16쪽

한 마음이었겠지만, 특히 유관순의 자주독립에 대한 애타는 심정이 “만세시위 때 죽어넘어간 시체들을 보고, 경찰서로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던 모습을 본” 친구들이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기차타고 고향 천안으로 내려오는 기차소리를 유관순의 귀에는 ‘대한독립’ ‘대한독립’이라고 들렸다는 증언이다.¹⁸⁾

6. 아우내장터 만세시위와 비폭력·자주 정신

1919년 4월 1일 병천시장 독립만세시위에 대해 헌병주재소에서 조선총독부 경무국에 전달한 극비보고에 의하면, “4월 1일 오후 1시경 병천시장에서 약 3,000여명의 군중이 구한국기를 선도에 세우고 독립운동을 개시하여 헌병주재소를 내습하여 폭행을 그치지 않아 발포해산하였다. 하지만 다시 일러날 우려가 있어 헌병과 보병장교를 추가 협조를 얻어 경계하던 중 4시경 다시 주재소로 쇄도하여 철조망을 파괴하고 구내로 난입하여 소방기구를 탈취하고 헌병오장을 붙잡아 가려고 하여 발포하여 해산하였으나 불온한 형세가 계속되어 헌병과 보병을 증파하여 경계 중이라”는 것이다. 또한 피해정황을 보고하는 내용에는 일본측은 헌병주재소로 돌맹이가 투입 창유리가 파손, 철조망 파괴, 전화선 절단 등의 물피이며, 시위측은 61명이 부상했고 18명이 부상 후 사망했다고 한다.¹⁹⁾

즉 3·1운동이 평화시위에 따른 무력함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조선의 평화적 자주독립의 대의와 일제의 군사력을 앞세운 철저한 폭력적 탈취라는 정반대의 상황을 세계만방에 보여주는 역사적 대 사건으로 기록되었다는 판단이다. 부친 유중권이 일제의 총검 앞에 사망을 목격한 유관순열사는 분개하여 주재소 소장의 멱살을 잡아 흔들기 까지 하고, 일병의 사격으로 군중의 희생이 크지는 상황 속에서 일병의 총구를 가로막아서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비폭력 평화시위로 한층 성숙한 저항을 성취한 것이다.

아우내시장 만세시위를 주도한 이유로 유관순열사는 1919년 5월 공주지방법원에서 5년, 경성복심법원에서 3년형을 선고받는다. 박충순(2021: 20)은 유관순과 함께 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지만, 유관순

18) 이정은 앞의 글, 122쪽

19) 이정은 위의 글, 150-151쪽

열사는 ‘어딜 가면 감옥이 아니겠는가’며 식민지화된 조국 자체를 감옥으로 보아 상고를 포기하였다고 한다. 그녀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호소와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는 서대문감옥에서도 옥중만세운동을 전개하여 방광이 터져 죽기까지 호소사례에서 짐작케 한다. 이정은(2010: 169-170)에 의하면 감옥에서 죽어 실려나온 유관순을 1920년 10월 14일 정동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러주었고 이태원 공동묘지에 묘비도 없이 묻었었는데, 일제하의 도시개발로 공동묘지가 없어지게 되면서 무덤이 파헤쳐져 열사는 자유의 혼으로 오직 우리의 가슴속에 남게 되었다고 한다.

IV. 유관순열사의 정신 계승사업과 방향

1. 정부·충청남도·천안시의 계승사업과 방향

1) 유관순상과 유관순햇불상

충청남도는 유관순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그 얼을 오늘에 되살려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전국단위로 선발하여 시상하는 한국 최고의 여성 상(賞)을 목표로 하는 ‘유관순 상’을 제정, 시행하였고, 전국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유관순열사의 정신을 선양 구현하였거나 인명구호 등 인간의 존엄성을 실천하는 등 환경극복과 정의실현의 모범학생을 선발, 시상하는 ‘유관순 햇불상’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유관순상’과 ‘유관순햇불상’은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여성(여학생)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라는 점에서 공감어 가는 부분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상자와 유관순열사의 업적과는 거리감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²⁰⁾ 즉, 단순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20) 유순덕, 「천안 유관순열사기념관 활성화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문화유산대학원 문화유산정책 전공 석사학위논문, 2015

이바지한 공로로 수상자가 된다면, 수상자를 통해 유관순열사를 떠올릴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일제강점기에 독립을 위해 애쓰신 선열 중에서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열사에 대한 연구나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도 이 상들의 수상자 문제 제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즉, 유관순열사의 뜻을 기리고, 명칭에도 걸 맞는 수상자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인지가 근본적인 문제로 보인다.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에서 보다 다방면의 연구들이 집적되고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정부와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수상자 선정문제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 유관순열사 추모제 및 아우내 봉화제

매년 유관순 열사의 순국일에 천안시와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사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추모제를 거행한다. 초기에는 10월 12일 거행했으나,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에서 순국일을 1920년 9월 28일임을 밝혀 낸 이후 매년 9월 28일 ‘추모각’에서 거행한다.²¹⁾

한편 아우내봉화제는 1978년 3·1절을 맞아 아우내 장터 만제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제1회 아우내봉화제를 개최하였다. 주요 내용은 햇불점화, 햇불시위, 봉화대 점화, 불꽃놀이, 비문낭독, 선언문 낭독으로 구성되며, 일본 헌병대와의 충돌, 헌병분소 전소 장면 등을 재현하는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2.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의 사업과 방향

사업회 현 회장 류정우에 따르면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조국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신 유관순열사의 독립항일 구국정신을 추모하고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 선양함을 목적으로 1947년

21) 박충순 앞의 글, 23쪽

9월 발족하였다. 당시 조병옥 박사가 명예회장을 맡고 이승만, 김구 서재필 최현배, 정인보 선생 등 민족 최고지도자들이 고문직으로 오천석 문교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각시도지사가 위원직을 맡았습니다.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는 지난 74년 동안 각종기념행사, 건조물과 시설 그리고 많은 추모사업을 추진 해 왔지만 애석하게도 유관순열사 건국훈장 독립장(서훈3등급)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추모제에 대통령의 헌화도 받을 수 없는 법률에 많은 국민들의 분노와 이를 시정하시겠다는 뜨거운 성원과 국민청원 등으로 3·1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지난 100년 전 유관순열사의 비폭력 저항 운동이 피해는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 하여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함으로써 오늘날 세계 젊은이들이 배워야하고 실천하여야 교과서가 되므로써 비폭력 저항운동이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 국위를 선양시킨 공로를 새롭게 인정하여 2019년 3월 1일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서훈1등급)으로 승격 추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http://www.yugwansun.kr>).

하지만 기념사업회가 운영 중인 유관순열사기념관의 시설물의 노후화와 야날로그식 프로그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순덕(2015)에 의하면, 1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전시관은 하루가 다르게 시설물이 노후화 하고 있다. 유물을 설명하는 명패가 오래되어 색이 변질되었고 열사의 활동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스크린도 고장이라는 것이다. 또한 방문객들이 열사의 삶을 이해하고 다시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시설,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기념품개발도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다.

즉, 노후화된 시설개선은 물론 철저한 고증을 통한 서대문형무소와 똑같은 감옥환경 마련을 통해 방문객들이 3·1만세운동과 체포감금 이후 어떠한 폭력과 압제 속에서도 자주 독립 항일정신을 실감토록 재설계해야 할 것이며, (비록 좀 고가일지라도) 방문객들이 기념하고 사갈 수 있는 기념품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3.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의 사업과 방향

1) 설립목적과 기능

백석대학교 유관순 연구소는 3·1만세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의 정신과 뜻을 연구하고, 민족의 자유독립이 지닌 의미를 탐구하며 국가 발전과 인류복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0년 10월12일에 설립되었다.

연구소의 기능은 크게 열사 및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수행과 그 성과를 보급하여 학술 중흥을 도모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유관순 열사 관련 학술연구 및 지원, 자료 수집 및 보존, 학술지 및 도서 간행은 물론 유관순 열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연구 교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연구소의 연혁

□ 학술대회 및 학술지발간

창립이래로 2001년 탄신 100주년 기념 제1회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20회에 이르렀고, 국제학술대회는 총 4회로 2002년도에는 유관순 열사 탄신 100주년, 2013년 광복 70주년 및 연구소 창립 15주년,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 및 2020년 유관순 서거 100주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학술지 ‘유관순 연구’를 발행하고 있는데, 2002년 창간호 이후 2020년까지 25호를 발간하고 이 사업은 향후 발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유관순학교

교장의 자랑스런 인물인 유관순열사의 생애를 청소년들에게 가르침으로써 나라사랑정신과 이웃과 함께하는 협동과 봉사정신을 함양함과 동시에 올바른 가치관을 갖춘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에 위탁교육 형식으로 운영되는 유관순학교는 유관순열사에 대한 강의, 조별활동, 역할극,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탐방, 생가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2003년 초중학생을 시작한 이래 2020년 33회째 운영 중이다.²²⁾

□ 유사모

‘유사모(유관순 열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는 유관순 열사의 뜻을 기려,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유관순 열사의 애국정신을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백석대학교 학생동아리이다. 유사모의 주요사업은 ①유관순

22) 박충순 앞의 글, 27쪽

열사의 신앙과 3·1운동 연구·계승, ② 육아원 및 장애인시설 봉사 활동, ③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활동, ④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수련 등이며, 유관순학교와 유관순연구소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3) 연구소의 발전방향

□ 유관순연구학회의 창립

유관순연구소의 학술대회 및 학술지발간사업과 관련하여 현 상황을 발전적으로 검토한다면, 우선 보다 많은 연구들이 다 방면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관순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유관순 연구’는 매년 1회 발간하지만 유관순연구학회를 발족하고 전국적으로 4개 지역회(수도경기권, 충청대전강원권, 경북경남권, 호남제주권 등)와 5개 분과위원회(총무, 편집, 대외협력, 연구윤리, 국제협력 등)로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고등학교 동아리(유사모)지원과 ‘유관순햇볼상’ 추천

초중학교 학생들은 유관순학교프로그램으로 유열사의 생애와 나라사랑의 정신을 배울 수 있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공백상태라 할 수 있다. 천안지역 고등학교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유사모 고등학교 동아리를 형성하게 지원하고 유사모 대학생을 중심으로 멘토가 되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면 고등학교 유사모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교동아리운영이 대입 등 진학으로 시간할애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적극 활동학생에 대한 ‘유관순햇볼상’추천과 백석대학교 입시상의 가점지급 등 다양한 혜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유관순교과목(대학교양과정) 개발과 운영

유사모가 운영되고 있지만 관심 있는 학생들에 국한되어 유관순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 백석대학교 조차 일반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제한적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양강좌로 유관순교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운영과목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열사의 생애와 애국정신, 평등과 자주정신, 헌신과 봉사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가능할 것이다.

4) 기타 유관순열사 정신 계승사업

□ 독립운동가 메타버스 구축과 충남 독립운동기념관 건축

최근 2021년 9월 7일에 개최된 “2021 충청남도 독립운동가 추모선양 학술포럼 중 유관순 정신계승사업의 성과와 방향”에서 발제자 박충순(2021: 29)은 유관순 열사의 유적지 생가와 매봉교회, 그리고 매봉산자락의 유관순 사우 등이 있지만 생가는 고증을 거치지 않고 건축하였고, 매봉교회는 생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사우 또한 영정을 모셔두는 추모각이상의 기능이 미미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충청남도 독립운동가 메타버스를 구축하여 충남을 넘어 한국의 현세대 및 미래세대는 물론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충남이 배출한 독립운동가의 활동과 사상을 이해시키며, 충청남도 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하여 현실세계에서도 독립운동가의 활동과 경험을 해볼 수 있게 하자고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철저한 고증결과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의 기술을 접목한 충청남도 독립운동가 메타버스를 구축한다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공급이 가능하고 효과적인 홍보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유관순 소재 애니메이션 영화 등 문화콘텐츠 개발

최근 2021년 9월 7일에 개최된 “2021 충청남도 독립운동가 추모선양 학술포럼 중 유관순 정신계승사업의 성과와 방향”의 토론자 김성철(2021:35-38)은 문화콘텐츠 상품은 일반상품에 비해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초기 마케팅 비용이 크기 때문에 브랜드가 중요한데, 유관순열사는 진리와 평화의 정신과 자유와 민족의 상징으로 고 브랜드 문화콘텐츠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는 비영리기업들과 연계를 통해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 고 브랜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유관순정신 계승사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

V. 결론

이상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유관순정신을 찾고자 하였다. 계승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유관순열사에 대한 이해를 깊고 폭넓게 하고 싶어서였다. 계승할 유관순열사의 정신은 그의 생애와 함께한 역사적 상황과 그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기독교신앙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역사적 배경에 따라 유열사의 항일과 독립정신이 성장하였다. 청일전쟁에 따른 유열사의 인근지역인 성환전투, 러일전쟁으로 일제의 조선 침탈이 본격화되는 과정에 일제의 토지수탈, 군대해산과 의병토벌을 구실로 한 양민학살, 직산금광 침탈, 일진회의 병천주민 수탈, 국가와 관청의 무능력과 의지할 곳 없는 주민들의 아픔 등을 접하며 유열사는 민족의 자주독립의 소중함과 항일정신을 세 겹을 것이다.

한편 종교 및 교육적 배경에 따라 평등 및 자주애국정신을 키웠다. 즉 힘없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의지가 되었던 기독교, 자연스럽게 읽고 외웠던 성경구절, 이화학당 진학이후의 학교채플과 정동교회에서의 거듭남을 경험한 담임목사님의 설교, 이화학당 교내부흥회 성경체험, 이문회의 강연과 활발한 사상토론, 일본인교원과 교과서검정에 따른 교육 자율권박탈 등을 경험하면서 평등사상과 자주애국정신이 성장하였다.

이러한 정신은 전국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서울의 3·1운동이 지역의 전파되면서 고향으로 내려온 유관순열사가 아우내 장터 만세시위를 가능하게 하였고, 부모님이 일제의 총칼에 사망하고 본인도 칼에 찔렸음에도 비폭력 자주독립만세를 불렀고, 그녀의 외침은 옥중에서도 계속되어 끝내 죽음의 몸으로 감옥을 나오게 된다. 정말 한 몸을 바친 꺾이지 않는 평화와 자주 수호신인 것이다. 그녀의 불멸의 정신이 어찌 중단될 수 있겠는가?

다음으로 유관순열사 정신계승 사업으로 정부, 충남 및 천안시의 사업, 유관순 열사기념사업회 사업,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사업 및 기타사업 등을 중심으로 각각의 개선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 유관순상과 유관순햇불상은 수상자 선정을 신중히 할 것과 선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관순연구와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맞춤 선정자 폭을 확대할 것.

둘째,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의 경우 서훈등급 승급의 성과는 높지 않지만 시설의 노후화개선과 방문객에게 깊은 감명을 줄 수 있는 재시설화 및 기념품

품질제고 등이 필요.

셋째,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사업은 유관순연구학회의 창립, 고등학교 유사모동아리 설립과 지원, 대학교양과정에 유관순교과목 개설운영 등이 필요.

넷째, 기타 열사 정신계승사업으로 독립운동가 메타버스 구축과 충남 독립운동기념관 건축 및 유관순 소재 애니메이션 영화 등 문화콘텐츠 개발 등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 김기창(2005), “유관순의 기독교적 리더십 연구”,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유관순연구, 제4호.
- 김성철(2021), “유관순 정신 계승사업의 성과와 방향”, 2021 충청남도독립운동가 추모, 선양 학술포럼 토론문: 33-38.
- 김종준(2011), “국권상실에 대한 일진회의 인식: 문명화론과 합방론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 40: 95-120.
- 나달숙(2014), “유관순의 저항과 재판에 관한 법적 고찰”,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 박충순(2021), “유관순 정신 계승사업의 성과와 방향”, 2021 충청남도독립운동가 추모, 선양 학술포럼: 1-32.
- 송지연(1997), “러일전쟁이후 일제의 군용지 수용과 한국민의 저항”, 이대사원 제30집: 65-100.
- 유순덕(2015), “천안 유관순열사기념관 활성화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문화유산대학원 문화유산정책 전공 석사학위논문.
- (2016), “천안 유관순열사기념관 활성화방안 연구”, 천안향토연구, 제3집 천안시동남구문화원.
- 이덕주·최태욱(2019), 유관순가의 사람들(서울: 신앙과 지성사).
- 이정은(2010), 3·1운동의 얼 유관순(서울: 역사공간).
- 임연철(2019), 이야기 사애리시: 유관순열사 신앙의 어머니, 충청 선교의 개척자(서울: 신앙과 지성사).
- 장종현(2014), 유관순의 생애와 3·1운동 I(천안: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 홍석창(1996), 애국소녀 유관순양과 매봉교회, 한국감리교회사학회.

두산백과(<https://terms.naver.com/entry>)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https://community.bu.ac.kr/yugwansun/>)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http://www.yugwansun.kr>)

위키피디아(<https://ko.wikipedia.org/wiki/>)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일진회(<https://terms.naver.com>)

A Study on the spiritual succession of Yu Gwan-sun

Byung-Ho Song*

Abstract

The spirit of Yu Kwan-sun remains immortal in the hearts of Koreans with anti-Japanese.

Her spirit is anti-Japanese, independent, equal, and patriotic spirit, which has protested injustice in the crisis of the existence of our people in accordance with Japan's imperialism, continental invasion and colonial strategy.

The study sought to identify the spirit of related spirit from historical, educational, and religious backgrounds. In other words, it is hypothesized that Yu Kwan-sun spirit may have been generated from what was learned and experienced before and after the birth of her.

The first hypothesis was a historical event that would have affected the Yu kwan-sun, which led to 'First Sino-Japanese War and the Seonghwan War', 'the Russo-Japanese War and land deprivation', the people murder under deprivation of military power, the invasion of Jicksan's mines, Iljin's diseased residents, the incompetence of the state and the government office, and the residents who could not rely on it.

Second, the assumption is that the education and faith learned and learned in the process of growing up after birth are inseparable from the spirit. It was assumed that the Christianity, which was willed by the people of Yu kwan-sun and the local people in the sense of pain and despair caused by japanese invasion, the Bible section that they read and memorized in Christian families, the Bible study and Bible experience during the Ewha University, the lectures and active ideological discussions of the Yimun Conference, and the deprivation of Japanese educational interests influenced the mentality of the related spirit. Because of the spirit formed in this situation, it was born again and again in an immortal spirit that peacefully bursts into Japanese injustice and tyranny, but does not yield and protests.

*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at Baekseok University

On the other hand, Yu kwan-sun's mental succession has great significance in return for the sacrifice of heat. As a way to improve the succession project, the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proposed improvement of the award-winning section of the Yu kwan Sun-prizes and Yu kwan Sun torch prizes, improved aging facilities and souvenir improvements at the Yu kwan Sun Memorial Society, revitalized the high school children's schools at Yu kwan Sun School, and revitalized the creation and research project of the Society of Baekseok University Yu kwan Sun Research Institute.

Keyword: Yu Kwan-sun, Anti-Japanese spirit, Independent spirit, Equality
peace spirit, love spirit, Yu kwan-sun's mental succession